

“세계가 나의 경쟁상대입니다”



(주)제원 인터내쇼날 김 경 아 과장

원부재료 전문 수입업체인 (주)제원 인터내쇼날의 사옥 3층에는 금남의 방이 있다. 특별히 남성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도 아닌데, 여덟명 직원 모두가 나이 스물 다섯을 전후한 개성 강한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원의 모든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김경아(28) 과장은 벌써 5년째를 이곳 무역부에서만 근무해온 실질적인 만언니인 셈이다.

한눈에 마음 끌려 입사 결심

“무역부 일이란 여성들의 섬세한 성격에 어울리는 업무가 많습니다. 통관절차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300여 가지나 되는 수입 원료에 대해서도 세세

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가요”

부원들 모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태라, 이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그의 애착은 남다르다. 자신이 무수히 경험했듯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에서의 협력이란 생산성을 배가하는 원동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원에 입사한 것은 대학 졸업반이던 지난 1992년. 수입 전문업체인 제원의 사원 모집공고를 보고 김경아 과장은 단박에 이 미지의 회사에 자신의 젊음을 투자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한 무역 업무라는 사실이 은근히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후 20대의 청춘이 발산하는 모든 열정을 이곳에 투자하며, 오늘도 그는 새로운 일을 찾아 활력을 충전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다.

여고시절까지만 해도 그의 꿈은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예정해두고 있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경희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과 공부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동안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히려 차츰 무역학과 강의에 쏠리고 있었다.

“좀더 진득하게 학과 공부에 매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4년 내내 장학

금을 받은 모범생 축에 끼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었거든요. 저희 과보다 오히려 무역학과 수업에 출석률이 높았으니 말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무역인의 꿈 펼쳐

(주)제원인터내쇼날은 86년 창업한 제과·제빵원료 전문 수입업체로, 그가 입사하던 당시 회사는 이제 막 주목받는 중견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이었다. 주로 중간 도매상을 이용한 백화점식 운영으로 매일 일정량의 원료를 직접 배송하는 등 직원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회사내의 체계에 적응하느라, 초년병 시절 그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학 시절 무역 관련 강의만은 빼놓지 않고 들어 업무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입사 두달만에 선임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일이 생기자 한동안 그는 분초(分秒)를 쪼개가며 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난 후에야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철저한 업무 장악력으로 소문난 그에게도 여태 밀린 숙제처럼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 다름아닌 거래업체 관계자를 만나 인간적인 친분을 쌓는 일이다. 신용을 주무기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분을 나누지만 아직도 그는 사람 사귀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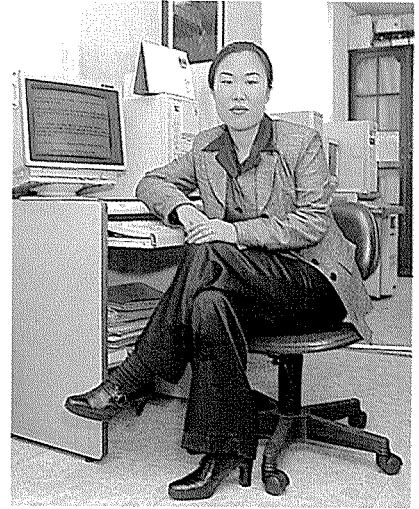
그래도 그는 여전히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전시회나 매장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모은다. 제품에도 저마다 유행이란 게 있어 그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면 수입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물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직접 발로 뛰는 시장조사를 철칙으로 하고 있다. 2~3개월 후의 제품 동향을 미리 예견하고 물량을 수주하자면 시장의 조류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탓에 그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백점 과장, 빵점 아내

지난 1995년 1월, 김 과장은 2년간 열애해 온 동갑내기 김승남(28)씨와 단란한 가정을 이뤘다. 남편 역시 업무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인 아내를 심분 이해하고 우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솔직히 가정 주부로서 재 살림 점수는 형편 없어요. 업무가 바쁘기도 하지만 남편이 워낙 자상해 제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는 성격이니까요. 결혼 이후 오히려 일에 쏟는 시간과 노력은 급절로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사 동기 중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리를 옮겨갔지만 철두철미한 업무 능력을 인정한 회사는 작년, 그를 무역부 과장으로 승진



▲ 그의 눈과 귀는 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이 직업에 그는 무한한 매력을 느낀다.

발령했다. 학창시절부터 소중하게 가꿔온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의 어깨에 실직한 책임감이 더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회사는 결국 업무의 비능률로 인해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오너가 합리적 성향을 고루 갖춘 분이 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바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필요 조건입니다. 제가 유달리 회사에 애정을 갖는 이유도 남녀 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창업 10주년을 맞이하는 제원의 일원으로 함께 일한지 5년, 그는 지금부터가 진정한 출발이란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회사의 심장부에서 기운찬 박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김경아 과장.

활달한 성격답게 기쁨 부원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그는 분명 ‘끼’와 ‘실력’을 고루 갖춘 우리시대의 아마조네스임에 틀림없다. **김경아** <글/이종원>



▼ 300여 가지나 되는 수입 원료의 시장성을 검토하는 것도 그의 주된 업무다.

▲ 그는 지금도 발로 뛰는 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행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고서는 2~3달 후의 업계 동향을 예견할 수 없다.